음식과 수행

구세주 식생활법②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음식도 '건강 음식'인 김치, 된장 고추장과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번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음식과 수행 코너를 시작했을 때 실었던 '구세주께서 설하신 식생활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다음은 구세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영생 민족이 선택한 음식 – 김치, 마늘, 양파

우리나라 조상들이 옛날부터 오래오래 사는 것을 동경했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동경했기 때문에 음식도 '건강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영생할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 습관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병 걸리면 병 낫게 해주는 김치를 먹고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스 병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김치를 먹으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김치 만들어 먹는데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김치를 만들어다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김치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김치도 맛있죠? 바로 파에도 항암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든지 마늘을 많이 먹으면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삼시 세 때 마늘, 파, 양파를 꼭 잡수세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된장과 청국장의 힘!

한국의 된장에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메주를 띄워 발효시켜 된장을 만들어 먹으면 위장과 장이 튼튼해져서 사람 몸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밥상에는 된장이 있어야 됩니다. 된장이 안 올라오면 잘못된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라든지 그냥 콩을 띄워서 먹는 청국장 있죠? 그 청국장을 해먹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청국장을 해먹고 된장찌개를 해먹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은 것이고 한국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청국장을 좋아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들이 한국 사람들 참 지혜롭고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머리가 참 좋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도 '미소'라는 일본 된장이 꼭 올라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동족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밥이 올라오면 꼭 미소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한국의 산에만 있는 명약 – 오미자, 구기자

그리고 한국의 산에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초가 많습니다. 오미자, 구기자 이런 것은 한국의 산에나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것을 캐다가 그대로 달여서 먹기만 하면 병이 낫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자를 가끔 먹고 대추, 호두 등을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잣이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이승우 기자

입문 수기

보광 후에야 비로소 "웃어"라고 하신 뜻을 깨닫다

청풍명월(淸風明月)의 본향 충청북도 제천이 고향인 나는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언니와 남동생 1명인 1남 2녀의 가정이었지만 그렇게 화목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술을 밥 먹듯이 하여 어머니께서 일터에 나가셔서 돈을 벌어오셔야만 생활이 가능했다. 이러한 어려운 가정환경 탓인지 어릴 적에는 말이 별로 없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사셨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셔서 고생하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아버지께서 술주정을 하시며 화를 내시고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마음에 아버지가 미웠다. 그리고 엄마가 불쌍했다. 그래서 내가 크면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친구 따라 부산으로 가다

우리가 사는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라 친구가 내겐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친구와 나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는데 친구 집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서 부산에 있는 산업학교에 간다고 해서 나도 친구 따라 부산여자 상업 고등학교(야간)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3교대로 일과 공부를 번갈아가며 했으나 어린 시절이라 피곤함도 모르고 생활했다.

졸업 후 꿈도 없고 뛰어나게 잘 하는 것도 없는 나는 모교에 찾아가서 3학년 때 나를 예뻐하셨던 선생님께 직장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직장을 구해 주셨다. 그곳은 봉제 공장이었는데 교무과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하여 만든 곳이었다.

당시 부산 연산동에 살았던 나는 쇼핑하는 것을 즐겼는데 하루는 〈사람 몸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학설〉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학설을 배워서 엄마에게 가르쳐 드리면 우리 엄마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이후로 승리제단에 나오면서 엄마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엄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만 두었다

그러던 중 친구는 회사를 다니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서 나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횟집에 알바 자리를 구하여 횟집에서 써빙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곳 주방에 설거지 하시는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인상이 좋다면서 자신은 승리제단이란 곳에 다니는데 가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승리제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 몸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학설〉이라고 써놓은 벽보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제단을 방문하게 되었다.

부산제단에 갔더니 전부 대학을 다니는 언니들과 대학 졸업한 언니들뿐이라서 약간의 위축감이 들었다. 그러나 언니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체험담이나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줘서 약간 위축했던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은 〈21일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21일 공부〉를 하는 동안은 시골집에도 가지 않았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자면 오염된다' 하여 기숙사 생활하다가 따로 자취방을 구해 생활했고, 그렇게 열심히 3개월 정도를 부산에서 보냈다.

하루는 비디오로 예배를 보는데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말씀에 나의 마음이 빨려들어 가는 것을 느끼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 비디오 말씀에 3층 공장 식구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와 닿아 주님께 3층 공장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로 특전대 버스를 타고 역곡으로 올라오는 중에 버스에서 예배를 보는데 세상 줄을 끊어야 된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보니까 까닭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확신이 들었다. 눈물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졌다. 눈은 창피할 정도로 퉁퉁 부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은혜 생활로 점점 몸과 마음이 좋아졌는데 주님의 구속으로 신앙이 약해져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3층 공장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언니들이 너무 반가워하며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옷과 생필품을 챙겨주었다. 나는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속세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일도 열심히 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되니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솟구쳐 올라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성격도 밝아졌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오셔서 손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유를 나눠주시고, 또 외국에라도 갔다 오시면 가져오신 선물을 나눠주시는 자상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에게 너무 포근하고 따스함이 전해져 그 순간만은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찰을 해주시어 아픈 곳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구세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나는 원래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많았다. 그래서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었는데 주님께서 공장에 오셔서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웃으라고 매일 말씀하시니 인간에게는 받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일과 더불어 나라는 마귀와 투쟁하며 승승장구 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중 1994년 1월에 주님께서 1차 구속을 당하시자 그 충격으로 나의 신앙이 약간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몸과 마음도 약해지는 가운데 드디어는 주님도 잊어버린 채 나태한 생활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주님께서 2000년 8월 14일 광복절 특사로 나오시어 3층 공장에 오셨는데 변한 모습은 한 군데도 없고 옛날 모습 그대로였다. 그동안 나는 마음도 많이 허약해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항상 입을 툭 내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니 너무 힘이 든다고 하시고는, 다음날부터는 공장에서 말씀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내 앞에 오시더니 "웃어"라고 하셨다. 그 후에도 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님께 면담 신청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웃으라고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체험은 경험해 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2차 구속과 보광으로 심적 혼란에 깊이 빠져

그렇게 3년 정도 지나고는 다시 주님께서 2차 구속이 되셨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며 앞이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9개월 후 무죄 판결로 반짝 기쁨은 뒤로 한 채 청천벽력과도 같은 주님의 보광(普光)을 접하게 되니 너무나 큰 충격으로 나의 몸과 마음이 커다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3층공장에서 일하던 언니들과 나는 너무 허망했고 갈 길을 잃은 미아(迷兒)처럼 서로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전혀 구세주임을 의심하지를 않았다.

영육일체설을 주장하신 주님께서 보광하셨다는 이유로 육신이 보이지 않으니 참말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해와 주님의 자리가 없었다면 더욱 혼란에 빠졌으리라 생각한다. 해와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영육일체설이 보통사람 즉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육이 죽으면 영도 소멸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신 조희성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었다. 또 주님의 보광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어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이라 생각하니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하였다.

또한 보광(普光)의 뜻이 구세주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두루 퍼져 나간다는 뜻이라고 하니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비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희망이 생겨 다시 힘이 솟아남을 느꼈다.

항상 나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면 항상 "웃어"라고 강조하셨던 뜻을 보광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항상 웃으면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겠다는 절실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홍효남 / 본부제단

구세주(생미륵불)의 상호(相好)와 바라봄의 구원 원리

불가(佛家)에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님이고, 생각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생각생각이 부처님이다(一念相應一念佛 念念相應念念佛)"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일념(一念; 한 생각)은 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찰나(刹那)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승리제단에서도 주님(이긴자, 구세주, 생미륵불)을 초초(秒秒)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하여 성령(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왜 이토록 바라봄이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승리자 조희성님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인간 본래의 신분은 하늘나라 성(城)에 계시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영원영원 전부터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었는데, 마귀는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한 신이었다. 성경 창세기서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술객들도 똑같은 뱀을 만들었던 것과 같이, 태초에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방한 마귀가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마귀를 바라봄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아담 하나님은 남자로 해와 하나님은 여자로 변신(變身)이 된 것이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앞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선악과가 마귀 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마귀영에 사로잡히기 전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던 하나님 신(神) 자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무지했음을 알 수 있다.

6천년 전에 마귀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마귀에게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점령을 당한 것이다. 바로 사람이 쳐다보지 않으면,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방법도 있고 툭툭치는 방법도 있고 쳐다보는 순간에 바로 눈을 통하여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속아서 점령을 당해서 바로 아담과 해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었는데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귀 영옥(靈獄)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좌정해 있었던 자리에 마귀가 좌정한 고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체적으로 정의(定義)한다면,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인간은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요, 마귀 종의 하나님이요,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이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마귀의 영이 인간 마음의 주인 즉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자아(自我)가 마귀라는 사실을 인류 최초로 깨달은 조희성님은 평소 반대생활을 철저히 하는 극기(克己)의 삶으로 일관(一貫)하였다.

반대생활 이전에 희생적인 생활이 선행되어야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닮듯이 인류의 어버이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후 3장 18절)

'나'라는 마귀가 자기 자신인 마귀를 죽이는 반대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희성님을 구세주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희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였다. 초등학교 때에는 어머니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만들어 지게에 지고 장터에서 팔았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비누장사와 성냥팔이로 고학을 하면서도 가정형편상 진학을 하지 못한 시골 친구 두 명을 서울로 불러 공부할 수 있게 학비를 대기도 하였다. 그리고 11년의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장교신분이었지만 몸이 허약한 부하들에게 고깃국에 쌀밥(장교식사)을 주고 보리밥을 먹었고 또 너무 배고파 하는 부하가 있으면 나는 밥 생각이 없다고 하고 보리밥마저 주어버리고 배고픔을 참았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이 많았는데, 업무시간이 끝나면 그 사병들을 모아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렇게 희생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마귀영옥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조희성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느 정도 강해졌을 때, '나'라는 괴수죄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먹고 싶으니까 반대로 안 먹고, 안 먹게 되니 배고파서 더 먹고 싶으니까 반대로 안 먹고 반대생활을 악착같이 하다 보니 자연히 열흘 금식하는 것을 떡먹듯이 한 것이다. 나중에는 30일 금식기도를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14번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 원시반본 되는 방법으로 반대생활을 하려고 해도,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희생적인 생활로 하나님 피의 권세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맡기는 생활로 돌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나'라는 조희성 대장마귀가 맡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렸던 것이다. 기도 자체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 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승리제단에서는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기도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나날이 영생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구세주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상호 역시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본 결과물

하나님께서는 승리제단의 식구들만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다 구원할 목적으로 구세주를 6천 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 키웠는데, 바로 인간 몸을 입고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될 구세주의 얼굴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망권세를 잡은 마귀를 죽이는 상호(相好)로 재창조하는 데 있었다. 이는 옛날에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는데 쓰던 무기를 역이용하려는 하나님의 전략 중의 하나였다. 격암유록 새 41장에도 '이견기타파멸마(利見機打破滅魔)'라는 말이 있는데,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박멸소탕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초초로 구세주님(생미륵불)을 바라봐야 구원이다. 마귀가 쓰던 무기를 뺏어가지고 초초로 구세주를 바라봄으로써 구세주의 영이 바로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形體)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 형체는 인형에 불과하고, 일원상(一圓相)은 부처님의 심체(心體)를 나타낸다고 원불교의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원(圓)안에 원만구족한 생미륵불의 상호가 온전히 채워질 때, 비로소 영육쌍전(靈肉雙全)의 법이 나와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圓佛敎敎典》 교의품19).

이러한 구세주님(생미륵불)의 상호와 바라봄의 구원 원리는 오늘날 현대과학조차 논하지 못하는 훨씬 앞선 학문에 속한다. 예컨대 죽은 사람의 사진에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사진을 방안에 걸어놓고 쳐다보는 순간 죽은 사람의 사자귀신에게 씌어 죽을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헛것을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구세주 조희성님의 사진에는 구세주의 분신이 붙어 있기에, 구세주를 바라봄으로써 곧 구세주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 마음속이 천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이 천당이 되어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